

# HONG KONG LINER



2026년 1월

Vol. 29

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홍콩경제무역대표부

## 홍콩 행정수반 방한 주요 내용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 경제지도자 비공식 대회,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우측)과 함께 찍은 모습

존 리 행정수반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ELM) 및 관련 활동에 참석했다. 올해 APEC이 내세운 화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로 연결·혁신·변명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내세웠다.

10월 30일 부산에서 행정수반은 AELM 참석 및

국빈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진핑 주석을 접견하였다. 오후에는 경제무역대표부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홍콩인 및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경주에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홍콩(중국) 대표단과 만찬에 참석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AELM 및 관련 행사 를 이어가며,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국제통화 기금(IMF)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회의에 참석

한 다른 지도자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별도로, 행정수반은 주낙영 경주시장의 초청으로 경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지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다. 또한 경주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유물을 통해 관람하였다.



행정수반(중앙), 한국에 거주하는 홍콩인 및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진행



행정수반(중앙), APEC 경제지도자회의 참석차 방한 시진핑 주석 공항 영접 진행



경주 중앙시장 방문한 홍콩 행정수반(중앙)

## 홍콩금융관리국, ‘핀테크 위크’ 10주년 맞아 ‘핀테크 2030’ 발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풀 찬 재정사장의 HKMA 총재는 금융을 재창조하고 홍콩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 ‘핀테크 2030’과 그 핵심 원칙인 ‘DART’를 공개

2025년 ‘홍콩 핀테크 위크 x 스타트업 힙(StartmeupHK)’이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시 규모는 행사 역사상 가장 큰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방문객 수는 4만 5천 명을 넘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번 성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다시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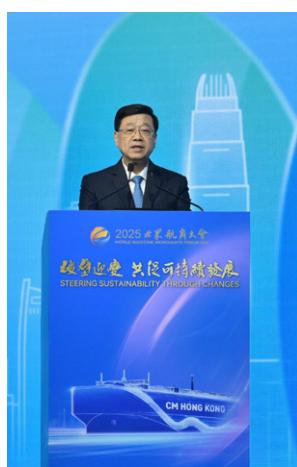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2025년 홍콩 핀테크 1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인 ‘핀테크 2030’ 전략을 공개했다. 에디유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민간 부문의 협력, 크로스보더 협력의 강화가 홍콩의 핀테크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함께 손잡고 금융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 나갑시다”라고 축구하였다.

## 2025년 홍콩 해양주간, 글로벌 해양 물류 중심지로서 홍콩의 입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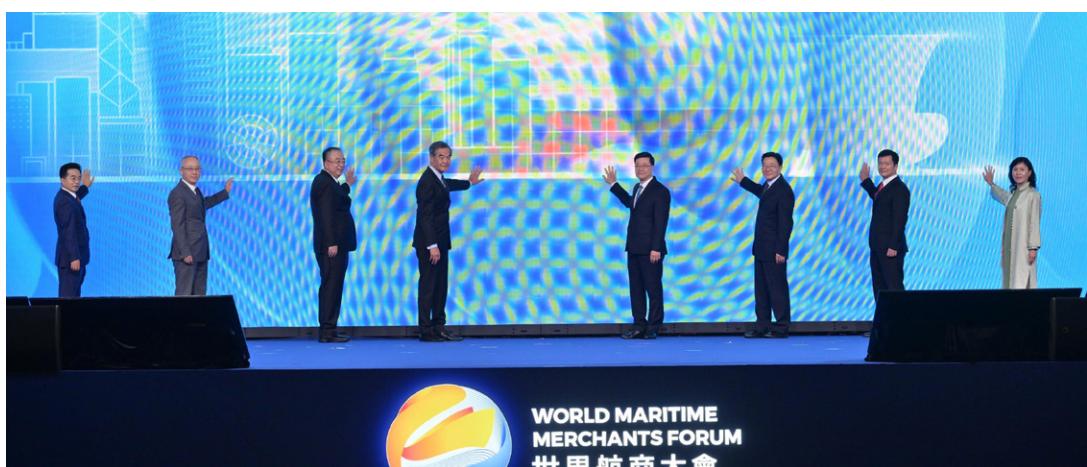
제9회 홍콩 해양주간(Hong Kong Maritime Week)이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이번 행사에서 홍콩은 글로벌 해양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70개 이상의 홍콩, 중국 본토 및 국제 기관들이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개막식에서 존 리 행정수반은 홍콩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 6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하였음에 주목하며, 안정적이고, 믿음직하며, 역동적인 해양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행정수반은 홍콩이 글로벌 친환경 해운 연료 무역의 중심지를 목표로 삼고, 안전하고, 효율적이

며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홍콩의 정책적 지원, 전문성, 전략적 비전과 그리고 굳건한 다짐이 차세대 글로벌 해양산업의 발전으로 향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25년 홍콩해양주간 및 세계해운상인대회(11.17) 행정수반 개회사



세계해운상인대회(11.17) 개막식에서 행정수반, 산업 대표단과 그 외 주빈

## 제2회 홍콩 패션 페스트

제2회 홍콩 패션 페스트(Hong Kong Fashion Fest)가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파리 패션위크를 주관하는 명망 있는 단체인 프랑스 오트 쿠튀르 연맹과 홍콩디자인센터가 협력해 선보인 'Play, Pose & Pixel: 디지털 패션 전시회'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최첨단 패션 기술과 무한한 디지털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떠오르는 홍콩 디자이너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선구적인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이에 더하여, 홍콩시립대학교가 주최하고 이탈



홍콩 패션 페스트, 'Play, Pose & Pixel: 디지털 패션 전시회' 및 '다시 이어지는 패션: 두 스타일 도시의 이야기' 선보여

리아 총영사관과 피스톨레토 치타델라르테 재단 및 밀라노 패션 위크 주최 기관인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등 다양한 파트너가 함께 지원한 '다시 이어지는 패션: 두 스타일 도시의 이야기'

(Fashion to Reconnect: A Tale of Two Style Capitals)도 진행되어 창의성 · 문화 · 국제 패션 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 GoGlobal TF, 중국 기업들 홍콩을 거점으로 해외 진출하도록 원스톱 플랫폼 공식 출범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거점으로 해외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TF팀이 10월 6일 공식 출범했다. 2025년 시정연설에 밝힌 바와 같이, 홍콩은 해외 주재 홍콩 사무소(홍콩투자청, 홍콩무역발전국 산하 사무소, 중국 본토에 위치하고 있는 홍

콩 사무소 등)를 통합하여,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거점으로 글로벌화'하도록 일원화된 원스톱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TF 조직, 법률 · 회계 · 금융 서비스 · 은행업 분야의 산업 파트너, 상공 회의소 및

전문기관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TF팀은 관계부처 및 기관간 의견을 조율하여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보다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일제는 야우 상무경제발전국장(중앙), 10월 14일 중국 기업들 홍콩을 거점으로 해외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TF 운영위원회 첫 회의 진행



풀 찬 재정사장(왼쪽 중앙), 10월 6일 GoGlobal TF 출범식 참석

## 홍콩 정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홍콩 사무소 설립 계획 환영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홍콩에 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11월 3일 밝힌 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동 결정을 환영하며 AIIB가 아시아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재무 및 국고부장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그 동안 AIIB가 홍콩에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해왔으며, 이번 긍정

적인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홍콩의 활발한 자본시장, 세계적 수준의 금융 서비스 및 다양한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AIIB 프로젝트 기금, 채권 발행 및 투자 · 금융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홍콩, 5대 글로벌 랭킹에서 높은 순위 기록

홍콩,  
2025년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에서 4위로 도약하며  
아시아 1위 차지

홍콩 고등교육 시스템,  
세계적 인정 받으며  
교육 정책 성과 입증

홍콩,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4위로 상승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에서 홍콩은 지난해 9위에서 4위로 크게 도약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이로써 홍콩은 아시아 1위를 차지했으며, 인재 경쟁력 지표인 '매력도', '준비도', '투자·개발' 3가지 부문에서 2년 연속 향상된 성과를 기록하였다.

타임즈 고등교육이 발표한 '2026년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홍콩대 33위, 종문대 41위 및 과기대 58대 등 홍콩대학지원위원회(UGC)의 지원을 받는 홍콩 소재 대학들이 다시 한 번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홍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개 대학이 글로벌 상위 100위권에 들며, 올해 모든 대학의 순위가 상승했다.

홍콩은 2025년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하였다. '기술' 및 '지식' 부문에서 각 3위 및 5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미래 준비성'에 대한 평가도 5계단 상승하여 10위로 개선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로  
재차 선정된 홍콩

홍콩,  
글로벌 금융센터지수에서  
세계 3위 유지, 1·2위와  
격차 좁혀

홍콩은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5년 세계 경제 자유도 연간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로 재차 선정되었다. 홍콩은 5개 평가 부문에서 '무역 자유' 분야 1위, '통화 건전성' 및 '시장 규제'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영국의 Z/Yen그룹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최신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38차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종합 평점은 4점 상승한 764점을 기록하며 세계 3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현재 홍콩은 뉴욕과는 2점, 런던과는 1점 차이로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재정사장, 한국 인천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풀 찬 재정사장은 10월 21일 한국 인천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지역 경제상황과 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재정사장(중앙)의 모습, 그 옆에는 법무장관(우측).

망, 디지털 금융,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다.

풀 찬 재정사장은 글로벌 및 지역 경제 전망 세션에서 일방주의와 관세 등 증가하는 도전 속에



재정사장, 회의 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과 면담 진행

서 세계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경제는 협력과 강제, 공동 번영과 좁은 자기 이익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홍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확고히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모든 회원국이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법무장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참석

풀 람 법무장관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인천에서 열린 2025년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방안에 대해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풀 람 법무장관은, “중국 홍콩은 규칙 기반 국제 경제 질서를 확고히 지지하며,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다”라고 밝히며, 국제중재기구의 홍콩 설립 지원 이외에도, 사법통일연구소(UNIDROIT)의 지역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장관은 10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법무부-홍콩 법무부 공동 법률세미나에도 참석했다.



법무장관, 대한상시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장승화 교수(우측에서 세 번째)와 오찬 면담 진행



한국 법무부-홍콩 법무부 공동 주최 법률세미나에서 법무장관의 환영사

## 상무경제발전국장,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알제논 야우 상무경제발전국장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야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Connect' 논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는 상무경제발전국장의 모습

우 국장은 ‘혁신과 번영’ 세션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홍콩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Innovate and Prosper’ 논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는 상무경제발전국장의 모습

특히, 야우 국장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를 전례 없는 속도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환 과정을 원활히 하고자, 홍콩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PEC의 디지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 전반에 걸친 AI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와 응용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수석대표, 부산, 경북, 울산 방문(9월 17일-22일)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경북),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한국 동남권 지역의 지방정부, 산업계, 기관들과의 교류를 강화했다.

부산에서는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을 예방해 부산의 미래 혁신 전략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만나 홍콩과 부산 간 금융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경북에서는 경주와 포항을 방문했다. 경주에서는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을 찾아 두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지역 문화 및 현대화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포항에서는 우수 취업 비자(Top

Talent Pass Scheme) 대상 6개 한국 대학 중 하나인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의 김종규 대외부총장과 면담을 통해 홍콩의 인재 유치 제도를 소개하였다.

울산에서는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예방해 홍콩과 울산 간 경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SK 울산 콤플렉스(CLX)를 방문해 정유 공정과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을 살펴보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생산 라인을 시찰했으며, 약수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울산 약수초등학교 방문



경주 전통시장 답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방문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우측에서 세 번째)과의 면담

##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Hong Kong Night' 참가

문화창의산업발전청(CCIDA)과 홍콩영화발전국(FDC)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참가하고자, 업계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여 'Hong Kong Cinema@BUSAN 2025'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BIFF와 아시안 필름 어워드 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하고 CCIDA가 후원한 '홍콩의 밤(Hong Kong

Night)' 리셉션이 9월 19일 열렸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600여 명의 영화 산업 관계자 및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수석대표는 BIFF 기간 동안 진행된 일련의 'Hong Kong Cinema@BUSAN 2025' 교류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홍콩 영화 홍보 및 한국 영화계와의 문화 교류 강화를 위해 마련된 'Hong

Kong Night' 리셉션에서 홍콩 영화 산업의 최근 현황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깨멜리아상 수상자인 영화감독 실비아 창의 특별 강연에 참여하고, 영화발전기금 지원작인 홍콩 영화 《他年她日》(Measure In Love)의 세계 최초 상영을 관람했다. 또한 CCIDA와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도 함께하였다.



CCIDA와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



BIFF와 아시안 필름 어워드 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하고 CCIDA가 후원한 '홍콩의 밤(Hong Kong Night)' 리셉션

## 홍콩위크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서울 방문

로사나 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홍콩위크 2025@서울(Hong Kong Week 2025@Seoul, 이하 홍콩위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막을 위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홍콩위크 개막식과 홍콩 발레단의 로미오+줄리엣, 홍콩 만화 문화전,

LOCAL POWER 2025 홍콩 패션 인 서울 등 주요 프로그램에 참석해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홍콩관광청이 주최한 '메가 이벤트 쇼케이스 미디어 런칭'에도 참석했다. 또한 M+와 리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순회 전시회 《이불: 1998년 이후》를 관람하였다.

9월 26일에는 홍콩위크 행사를 지원한 유병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과 만나 홍콩과 한국이 긴밀하고 활발한 문화적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자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콩위크 2025@서울 개막식에 참여한 주빈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홍콩관광청 '메가 이벤트 쇼케이스 미디어 런칭'에서 환영사 진행

##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과 광주에서 내한 공연 선보여

홍콩위크 2025@서울의 일환으로,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0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정과 정교함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광주예술의전당에서는 전당 개관 2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공연이 10월 18일에 열렸으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한국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의 성공적인 협연을 선보이며,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상주 지휘자 리오 쿠오크만(좌측), 그리고 한국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우측)

## 홍콩 M+와 리움미술관, <이불: 1998년 이후> 전시 공동 개최



현재 M+와 리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순회 전시 <이불: 1998년 이후>가 리움미술관에서 2026년 1월 4일까지 개최 중이다. 이후 다른 주요 국제 기관에서 전시된 후, 2026년 3월에는 홍콩 M+로 이동하여 전시될 예정이다.

이불 작가(LEE BUL, 1964년생)는 대한민국 설치 미술가로,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격동적인 사회정치적 상황에 반응한 실험적 작품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40여 년 동안 퍼포먼스, 조각, 설치, 2차원 작품 등 다면적 예술 활동을 이어왔다. 그녀의 작품은 신체와 사회, 인간과 기술, 자연과 문명,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권력 구조 사이의 복잡하고 변화하는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10주년 특별전시 '봄의 선언' 전시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전시 '봄의 선언 (Manifesto of Spring)'은 홍콩 M+와 독일 ZKM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센터가 공동 기획했으며, 2026년 2월 22일까지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 과학자, 이론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 탐구하고, 지역성, 생물다양성, 미래 세대를 중심

으로 한 대안적 실천을 모색한다.

김순기, 박경근, 서동진, 앤 덕희 조던 (Anne Duk Hee Jordan)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태적·사회적 문제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다루며, 12점의 신작을 포함한 위촉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 홍콩 고궁박물관, 이집트 박물관 고대 유물 특별 전시



홍콩 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고대 이집트의 베일을 벗기다: 이집트 박물관의 보물들(Ancient Egypt Unveiled: Treasures from Egyptian Museums)' 전시는 고대 이집트 유물 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장기간 진행되는 전시로, 2026년 여름까지 파라오와 신들의 조각상, 금 장신구, 대형 관, 동물 미라 등

을 포함한 총 250점의 귀중한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 유물은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을 비롯한 이집트의 주요 7개 박물관에서 대여되었으며, 사카라 유적지에서 최근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도 포함돼 있다. 모든 유물은 홍콩에서 처음 공개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집트 국외에서 최초로 전시되는 작품으로 전시의 의미를 더욱 더한다.

SPOTLIGHT HONG KONG



**제15회 전국체육대회, 성황리에 폐막**

홍콩에서는 제1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8개 종목에 602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사상 최다인 19개의 메달을 기록하였다(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

홍콩 경기구역에서는 홍콩 대표팀이 남자 력비 세븐스, 여자 매디슨 트랙 사이클, 여자 옴니움 트랙 사이클,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은메달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트라이애슬론 혼성 릴레이에서 나왔으며, 동메달은 트라이애슬론 남자 개인전, 여자 에페 개인전,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거두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kgreetskorea/](https://www.facebook.com/hkgreets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kgreetskorea/](https://www.instagram.com/hkgreetskorea/)

이메일: [seoul\\_enquiry@hketotyo.gov.hk](mailto:seoul_enquiry@hketoty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http://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http://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www.facebook.com/brandhk.isd](https://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o.gov.hk/korea](http://www.hketotyo.gov.hk/korea)